



실조증 : 환자분들을 위한 안내

실조증이란 무엇인가요?

'실조증(失調症)'이라는 말은 잃어버림을 뜻하는 실(失), 그리고 고르다, 어울리다를 뜻하는 조(調)가 붙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즉, "조화나 균형을 잃어버린 움직임"을 뜻하며, 실조증 환자에서는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되는 어설픈 움직임과 균형 잡기 어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내 몸을 조화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신경계의 여러 부위가 같이 작용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 중 한 부위가 손상되면 실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담당의사는 진찰을 통해 실조증이 뇌, 척수, 말초신경 중 어떤 부위의 손상으로 발생하였는지 진단하게 됩니다. 실조증의 가장 흔한 원인 부위는 뇌의 한 부위인 소뇌입니다.

실조증의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일어설 때 균형잡기가 어려움
- 걸을 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음
 - 양 발을 양 옆으로 넓게 벌리고 걷게 된다.
 - 한쪽으로 기울거나 넘어진다.
 - 직선을 따라 걷기 어렵다.
 - 불안정하여 넘어진다.
- 조화롭지 못하고 서툰 손 움직임
- 물건을 잡으려고 손을 뻗을 때 손이 떨림. 손이 목표물에 다가갈수록 더 떨림. 팔 외에도 다리, 머리, 심지어 몸 전체가 떨리는 경우도 있음
- 마치 술 취한 듯한 불분명한 발음
- 눈동자 움직임의 이상으로 인해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흐리게 보이는 경우도 있음
- 어지러움

원인은 무엇인가요?

실조증은 여러가지 질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암, 뇌졸중, 외상, 감염 등으로 인한 뇌 손상
- 비타민 B1, B12, E 등의 결핍
- 페니토인, 카바마제핀, 바비튜레이트, 신경안정제, 일부 항생제, 리튬, 아미오다론과 알코올 등의 약물
- 다발성 경화증, 뇌혈관염 등의 자가면역 질환 또는 암에 대한 자가면역반응
- 저혈당증이나 갑상선 기능저하 등의 대사성 질환
- 다계통위축증, 척수소뇌실조증 등의 신경퇴행성 질환
- 유전적인 원인

어떻게 진단하나요?

실조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담당의사는 환자의 가족력을 포함한 임상 병력을 청취할 것입니다. 담당의사는 자세한 신경학적 검진을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합니다. 단, 아래의 검사가 모든 실조증 환자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뇌 CT 혹은 뇌/척수 MRI
- 혈액, 소변, 뇌척수액 검사
- 혈압과 소변기능검사
- 심장검사
-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 인지기능 검사 및 정신과적 검사
- 안구운동 검사
- 유전적 실조증을 진단하기 위한 혈액 검사

치료방법은 있나요?

실조증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약물이 실조증의 원인이라면 약물중단만으로 증상이 호전됩니다. 비타민 결핍, 암, 자가면역 그리고 대사질환이 실조증의 원인인 경우는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원인의 실조증 중 일부는 특정 비타민 혹은 약물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는 경우에도, 재활, 작업, 말하기 치료가 실조증 환자의 기능회복과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